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2020. 06. 제459호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

효자군수, 100세 어르신과 함께하는 고창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효자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상 고창군수가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고창군노인복지회관 직원들과 지역 최장수 어르신인 고창군 대산면 장동마을 김귀아 어르신(112세)을 찾아뵙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김귀아 어르신은 112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직접 국회의원 투표장을 찾을만큼 건강하셔서 지역 건강 장수의 대표적인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고창군은 역경의 100년 세월을 이겨낸 장수어르신을 지역에서 자랑스럽게 기리고 마을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CONTENTS

02 포토에세이

효자군수, 100세 어르신과 함께하는 고창

04 인사말씀

민선 7기 2년 즈음

06 고창 사는 기쁨

민선 7기 출범 2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수상소식

14 함께해서 이겨냈다

코로나19 군민울력
비상경제대책회의 위원회 가동
농촌일손돕기
방역, 선별진료소
기부, 나눔

20 고창군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

22 고창이 참 좋다

트로트계의 BTS 가수 진성
주)하이트진로음료 조운호 대표
북분자식초 안문규 명인
결혼이주여성 1호 공무원 유연씨

30 의회

의장 인사말
의정 포커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36 지역경제 지킴이

높을고창 카드 생활기

38 자식농사 잘짓는 사람키우기

김복순 할머니, 인재키우기 장학금 1억원 쾌척

39 텔레비전에 나온 고창

한국인의 밥상, 6시 내고향 등



고창소식(재외군민 무료 우편 발송)을 보내드립니다.

주소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전화 063-560-2327 팩스 063-560-2259

홈페이지 www.gochang.go.kr 발행처 고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발행인 고창군수

발행일 2020. 6 디자인 슬그래픽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의한 2/4분기 1종1회 홍보물입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사진자료를 고창군의 허락 없이 무단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민선 7기 2년 즈음

平

평

易

이

近

근

民

민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더 친근하게 군민
속으로 들어가고 민과 함께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는
민선 7기 고창군민의 민선 7기
의지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재외군민, 기관·사회단체장님을 비롯한 각계각층 지도자 여러분과 저를 믿고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농생명문화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를 목표로 힘차게 출발한 민선 7기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고창군민과 고창군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을 최고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오직 고창군민만을 위해 일해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고창군은 자랑스런 군민과 함께 울력해 성공적인 방역 역량으로 바이러스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창의 품격과 의연함은 코로나19 극복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면 마스크 제작’, ‘딸기·표고버섯·잡곡 드라이브스루 판매’등 아이디어와 결단은 그 산물입니다.

희망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풀밭으로 변해 버렸던 고창일반산업단지의 유치권이 해결됐고, 최근에는 1500억원 대의 기업유치에 성공해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가 대한민국 모든 역사교과서에 수록됐고, 희망2020 나눔캠페인 성금모금에서 전라북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오로지 군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 생각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수없이 중앙부처에 달려가 군민 여러분께 약속사항과 주요사업의 추진 토대를 마련하고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창군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저에게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려와 연대의 끈을 놓지 않는 군민들께 ‘희망’을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고창의 의료인과 방역대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헌신’을 배웠습니다.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

서도 지역과 주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열정’을 배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는 저에게 배움의 기회였고, 군민 여러분은 저에게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저에게 가르쳐주신 희망, 헌신, 열정의 씨앗이 결실을 맺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빈틈없는 방역으로 한반도 첫 수도 높이고 고창군민의 일상을 반드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용자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시던 모습을 보고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고창군민 여러분!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자리이타 정신으로 한반도 첫 수도 위대한 높이고창을 향해 모두 함께 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 유기상이는 농민군수, 효자군수, 서민군수가 되자는 초심으로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위해 손을 잡고 계속해서 큰 걸음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군수

유기상



3000년전 고인돌 시대부터 위대한 문명을 이룩해 온 고창군

민선 7기 출범 2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닭고기 전문 가공업체 주)동우팜투테이블, 고창산단에 1500억원 규모 투자한다



650명 고용창출 효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창' 뜬다

고창군은 군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8년부터 고수면 봉산리 일원에 고창일반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해 왔다. 당초 2014년 완공예정이었으나 매립토양에 대한 시공사와 고창군의 이견에 따른 법적분쟁으로 풀만 무성하게 자라 군민들의 애를 태웠다.

이에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일반산단의 정상화를 군정의 첫번째 과제로 정하고 시공사와 적극적인 협의와 함께 법적대응을 이어왔다. 그 결과, 2019년 연말 유치권 해결에 이어 단숨에 기업유치까지 성공하며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다. 고창군이 닭고기 가공업체인 주)동

우팜투테이블과 고창일반산업단지에 15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민선 7기 '농생명식품산업 육성' 관련 1호 식품기업 유치다. 특히 고수면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고창일반산업단지 민간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업체는 물론, 선진적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곳을 방문해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이에 업체도 신설되는 고창공장에 최첨단 악취저감 친환경 시설, 지하화된 폐수처리시설 도입 등을 약속했다. 군은 향후 650명의 고용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은 기업유치 성공사례를 통해 앞

으로 고창일반산업단지를 농식품 전문 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군은 일반 산단에 20개 기업 정도를 유치해 2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제1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업인과 근로자, 지역주민을 위해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가 100억원 투입해 내년도 준공 목표로 체육관, 작은 도서관, 작은 목욕탕, 일자리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산단 근로자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줄 LH임대아파트도 연말 착공될 예정이다.



고창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식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고창무장봉기, 126년 만에 모든 한국사 교과서 수록

국가기념일 포고문 낭독, 성지화사업 국가예산 확보 이은 '꽤거'



무장(전북 고창) 동학 포고문 한국사 교과서 기재



무장기포 기술 한국사교과서 봉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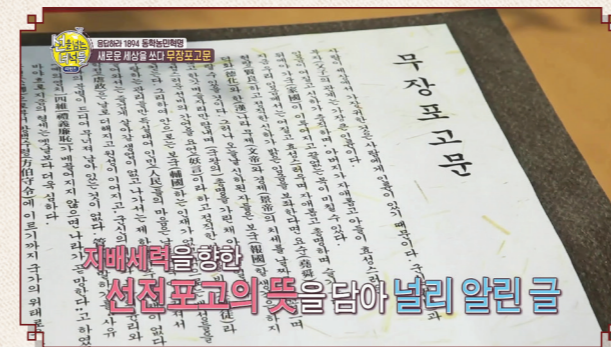
2020년 새학기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8종의 한국사교과서(2019년 11월27일 검정) 전체에서 고창 무장봉기(무장기포)를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학 전문연구자들과 고창군민 등 소수만 알던 역사적 사실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국가기념일 무장포고문 낭독', '성지화 사업 국가예산 확보'에 이은 '역사교과서 수록'으로 고창군의 동학농민혁명 자긍심 찾기 노력이 빛나고 있다. 각 교과서는 무장봉기(무장기포)에 대해 "1894년 음력 3월20일(양력 4월25일) 고부 봉기에 실패한 전봉준이 손화중과 힘을 합해 고창 무장에서 일으킨 대규모의 농민 봉기"로 기술했다. 또 1954년 국내 최초

로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한 미래엔 등 일부 교과서는 '무장포고문'과 '4대 강령' 등을 수록하기도 했다. '고창 무장기포'는 혁명의 이념과 지표인 '무장포고문'과 농민군 행동강령인 '4대 강령'을 정립 발표함으로써, 소규모 농민 소요가 농민 혁명의 틀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인 대규모 항쟁으로 커지고, 우리나라 역사 민족·민중항쟁의 근간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역사 교과서 수록을 계기로 고창 무장기포지와 전봉준 장군의 생가터의 문화재,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 등 선양사업, 동학 의향정신을 살린 자랑스런 군민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일요일 저녁 인기 역사탐방프로그램인 MBC선을넘는녀석들이 지난 5월24일 동학농민혁명발상지 고창군을 찾았다. 무장기포지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 했고, 동학농민혁명의 불씨를 일으킨 '비밀의 배꼽'이 있는 선운사 마애불상에서 세상을 향한 농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느끼며 배웠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가 고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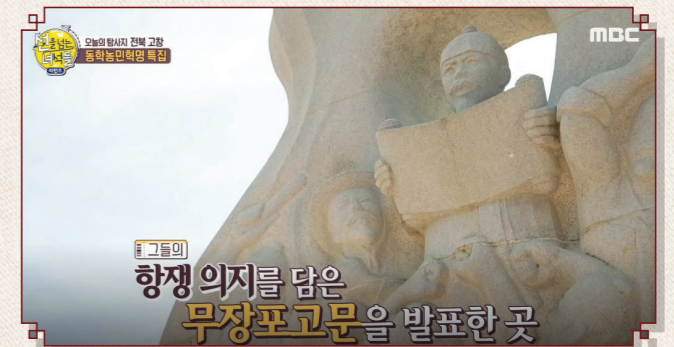
저배세력, 선진포고의 뜻을 담아 널리 알린 글

또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린 무장포고문 필사첼린지에 도전하며 동학농민군의 결의를 다시한번 되새겼다. 방송인 전현무는 무장포고문의 한 구절을 짚으며 "나라가 힘들때마다 힘을 모았던 우리 민족의 특징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학농민군 훈련장 <여시되봉(-왕제산)>

전봉준 장군 생가터 <당촌마을>



그들의 항쟁 의지를 담은 무장포고문을 발표한 곳



과연 무장포고문의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고창군에 대해 관심 가져 주시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MBC문화방송과 정형일 MBC보도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생명 식품산업 한반도 수도, '높을' 고창'으로 뜬다

전북 최초 농민수당 지급

고창군과 고창군의회는 전국 최초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지난해 추석 전 전북최초로 농민수당이 고창농민 1만155농가에 28만 5000원씩 지급됐다. 올해는 전라북도와 함께 농민공익수당 60만원이 고창사랑상품권으로 각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고창 땅에서 토종종자를 지키며 땀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의 마음으로 농생명을 살리는 군정을 펴겠다는 고창군정의 가치이자 마음가짐이다.



농민수당_모내기

고창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높을고창'

올해 고창군의 농특산물은 '높을고창'이란 이름으로 전국의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다. 한반도 첫 수

도의 높은 위상과 높은가격, 높은 품질, 높은 신뢰도, 높은 당도 등을 포함하는 고품질 먹거리를 나타내는 명품브랜드다.

'높을고창'은 고창군의 첫 글자인 한자 '높을 고(高)'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높을고(高)를 감싼 육각형 모양은 하늘에서 바라본 '고창읍성'에서 따왔다. 한자 역시 추사 김정희 선생이 고창군 아산면 반암마을의 한 고택 기둥에 쓴 글씨와 선운사 백파스님의 부도비에서 고(高)자를 현대적으로 디자인했다.

모두 함께 즐기는 건강한 신맛! 대한민국 식초문화도시 '고창'

농생명식품수도 고창군이 지역의 자연과 먹거리를 활용한 식초문화도시로 발돋움 한다. 식초산업은 복분자 등 고품질 원재료의 1차 생산에 머물지 않고, 가공, 유통, 판매, 체험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며 '농생명식품 수도 고창'의 미래를 밝혀줄 블루오션이다.

현재 고창군청 로비 아띠다방 등 고창지역 4곳의 카페에서 식초음료를 판매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도 식초문화 아카데미(초급, 응용, 상품화)를 개설해 활동하고 있다.



강소농대전 고창식초 부스에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이 방문해 유기상 군수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식초문화도시 선포식

고창군과 식품기업 상생협력 '대박'

농식품부가 선정한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우수기업' 전국 9곳 가운데 무려 3곳

(상하농원, 국순당 고창명주, 하이트진로음료 블랙보리)이나 고창군과 상생협력 사업을 진행해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여기에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경진대회'에서도 고창쌀을 계약 재배해 농가 소득을 높인 CJ프레시웨이까지 대상을 받았다.



여성친화, 인문학도시로 군민행복 UP

여성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 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협약식

고창군이 전라북도 군 단위 최초로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됐다. 군은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등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의견을 적용해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 성평



등 정책을 추진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민선 7기 유기상 군수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를 위해 군은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팀 구성을 완료하고 여성친화 군민참여단 위촉·운영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40% 달성 우리동네리더 여성친화마을 활동가 양성 등 여성친화 기반구축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다.

특히 고창군 역사상 최초로 여성부군수 천선미 시대를 열었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는 등 행정 곳곳에서도 신선한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여성친화 해움터(특목울림방) 현판식

아이부터 어른까지 배움의 도시

고창군이 교육부로부터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국비를 지원받아 하반기부터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주문형 방문프로그램 운영, 시니어 소득창출 프로그램, 지역재생 리더 양성 등 평생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책마을 해리에서 '제3회 고창 한국지역도서전(5월9~12일)'을 성공적으로 열며 책으로 가득한 도시, 독서율이 가장 높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수상소식



대한민국 농민들이 직접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상 수상

지역 농업인 최우선 정책 호평

고창군이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주)농업인신문이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농업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민선 7기 군정슬로건을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으로 정하고, 농업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고창 농생명식품 산업에는 지역 농업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고창군은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토종씨앗 육성조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제한 조례도 만들며 '고창에서 나온 것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또 농기계 임대 제도를 농민 편의 위주의 배달 시스템으로 바꿨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 2019한국마케팅 프런티어 '대상'

고창군이 한국마케팅학회가 선정한 2019년도 '한국마케팅 프런티어 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지역마케팅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과 곳곳에 산재한 고분군 등을 통해 '수천년 전부터 한반도의 중심'이었다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이란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냈다.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 고창군, 일자리 창출 평가 최우수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2020년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표창과 인센티브(1억원)를 받았다. 고창군은 지난해 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창업·소상공인 지원, 차별화된 정책, 단체장의 의지에서 호평을 얻었다.



희망캠페인 전북1위, 사랑의 열매 감사패

지난 겨울 각계각층의 자랑스런 군민들의 뜨거운 이웃사랑 열기를 보여줬던 고창군이 사랑의 열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고창군은 '희망2020 나눔캠페인(2019년 11월20일~2020년 1월31일, 73일간)'을 펼쳐 4억310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이는 지난해(3억9400만원) 대비 109%증가로 전북도 14개 시·군 중 1위를 달성했다.



"명품 생태공원으로 재탄생된 고창자연마당" 제19회 자연환경대상 수상

고창군 자연마당이 환경부가 후원하고 (사)한국생태복원협회 주관으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9회 자연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대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생태공간으로 재탄생한 자연마당은 습지, 유아놀이터, 숲체원, 야외학습장 등으로 꾸며져 가족·연인들이 가볍게 산책하고,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 꼼짝마!!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은 우리가 지킨다”

고창군민 모두 함께 나선 코로나19 방역 울력

고창군 각 사회단체와 개인봉사자들은 매일 오전 10시 고창자원봉사종합센터에 모여 압축소독 방역기, 소독약, 방진복, 니트릴장갑, 마스크 등 만반에 준비를 갖추고, 현장에 나가 2시간여 동안 홍보 캠페인, 손 소독제 나눔, 소독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고창군지부(회장 송기수), 고창군재향군인회(회장 성홍제), 환경국민운동본부고창지역본부(회장 심길문), 바르게살기고창군협의회(회장 배광우), 자연보호고창군협의회(회장 서문수), 고창군 4-H연합

회(회장 유진주), 가족사랑봉사단, 수많은 개인봉사자들이 참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전문 소독 공동방제단도 소독차를 3개조 편성해 주요 도로 등 감염병 확산방지 활동을 펼쳤다.

여기에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의용소방대도 울력해 면사무소, 경로당, 보건지소, 전통시장 등에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 방역 봉사활동 (재향군인회)



코로나 방역 봉사활동 (자연보호중앙연맹)



코로나 방역 봉사활동 (고창군 4-H연합회)



코로나 방역 봉사활동 (소독전문 방제단)



코로나 방역 봉사활동 (환경운동본부 고창군지부)

어려울 때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고창’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여성회관 교육생, 마스크 제작 재능기부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재봉기술을 가진 고창군민들이 직접 수제 마스크 만들기에 나섰다. 정성스럽게 만든 마스크는 소외계층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량 기부됐다. 천 마스크 제작은 고창군 여성회관 양장기능사 교육수료생들의 모임에서 시작됐다. 소식을 들은 손뜨개반, 떡다저트반 수강생은 물론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도 천 마스크를 제작 재능기부에 동참했다.



고창의 기부천사들, 꿈나무들 간식지원

고창군 지역봉사모임인 ‘악동클럽’이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떡볶이 등 간식을 지원했다. 이날 간식은 정영숙 고창효자병원장과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이뤄졌다. 소식을 전해들은 고창군 신전떡볶이(조영숙 대표)도 “아동들에게 써달라”며 고창 행복원에 10만원을 전달했다.

얼굴없는 천사, 고창군청 당직실에 동전바구니 4상자 놓고 사라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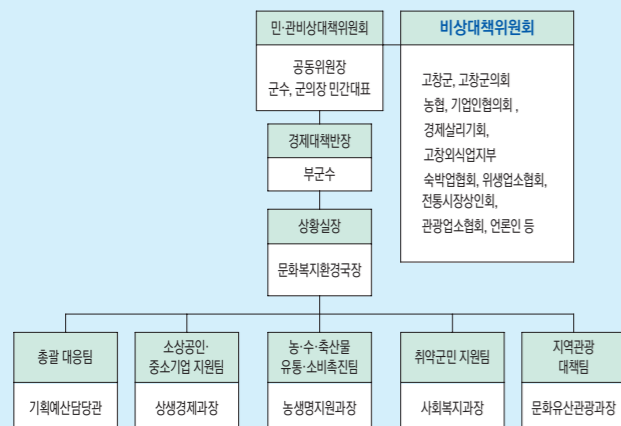


지난 5월12일 자정 무렵 오토바이를 타고 온 중년 남성이 군청 당직실에 동전 4상자를 전달하고 사라졌다. 기부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동전 상자에는 500원, 100원 등 각종 동전이 가득 담겨있었다. 모두 127만 8010원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창군 기부계좌로 입금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신 익명의 기부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비상경제대책회의 코로나19극복, 고창 모든 조직 울력나섰다



고창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례 없는 비상경제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고창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유기상 군수와 조규철 고창군의회 군의장, 기업인협의회, 고창경제살리기 여성회, 고창외식업지부, 숙박·관광·전통시장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면서 등 지역경제 대책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고창경제살리기 TF팀 성과

경제대책 사업 긴급진행 27개 사업(약 89억 3천만원)

자체사업 발굴 시행 8개 사업(9억 7천만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1억원), 코로나19 피해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6억9800만원),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감면(4000만원), 높을고창카드 결제수수료 지원(1억원), 영세 소상공인 배달앱수수료 지원(2500만원), 자동차 통과 농산물판매행사(1000만원) 등

‘고창 경제 살리기’ 각 분야별 대책은

소상공인 긴급지원

공공요금 지원(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2060개소 대상), 관광 사업체 홍보·마케팅비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높을고창카드 100억원 상당 추가발행(할인율 10%확대 지원), 사회적거리두기 운영제한 업소(학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긴급지원금(300개 시설, 70만원씩) 등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드라이브 스루 농특산물 소비촉진행사 추진, 고창 농산물 TV홈쇼핑 방송 송출료 등 지원, 복지재정 조기 사용(공직자 고창관내 식당 이용 활성화 등), 재외국민 내고향 물품 2배 팔아주기 등

위기 안전망 강화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한시 생활비 지원(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지원), 노인사회활동 및 일자리 사업,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아동양육 긴급지원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자랑스런 군민들의 울력으로 이겨냅시다”

고창농특산물 차량판매(드라이브스루) 인기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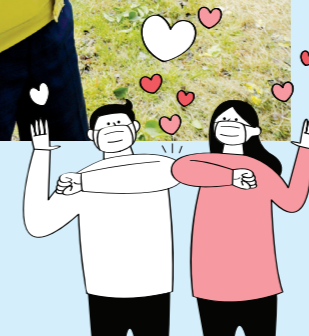
매주 금요일 오전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에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고창군과 고창군발전연합회, 표고버섯 재배농가, 바지락 농어민 등이 준비한 ‘고창 농특산물 특별 할인 판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차량판매(드라이브 스루)방식을 채택했다. 운전석에 앉아서 주문서만 내면, 판매원들이 뒷자리나 트렁크에 짐을 넣어준다.



‘고추정식’, ‘배 속아주기’ 고창군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지난 5월9일 유기상 고창군수와 군청 직원들이 고창읍 호동마을을 찾아 배 속아주기 작업에 힘을 보탰다. 열매숙기란 어린 배가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해 좋은 과실로 자랄 수 있도록 어린 배 수를 적당히 조절하는 작업을 말한다. 직접 눈으로 보고 부실한 열매를 떼어내야 해서 사람의 손을 꼭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고창군청 직원들은 무장면 월봉마을, 춘산마을에서, 해리면사무소는 신흥마을에서, 고수면사무소는 상평마을에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추식재작업과 지주대 세우기 작업을 도왔다.



“방호복 입고 너덜여 비상근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부듯”

고창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김여미 주무관이 근무하고 있다



코로나19 지역전파 예방 일제방역-고창 터미널 방역작업



고창군보건소 다함께 하는 ‘주민 참여형 대응’

고창군은 이번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처 방안 홍보, 방역소독, 면 마스크 제작, 대구·경북 지원 등 곳곳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대응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고창군의 방역 실적을 보면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큰 힘을 발휘하며 6월2일 현재 868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3716개소의 소독이 진행됐고, 사유시설 방역소독 실적도

고창군보건소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총력대응

고창군은 지난 1월 말부터 보건소 일반 업무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 중이다. 6월2일 오전9시 현재 200여명의 검사를 진행해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유병수 고창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은 “초기에는 각종 지침을 확인하고 조직을 갖춰 현장 대응 체계에 익숙하기까지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마다 동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 감염병은 업무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지역 내 의료기관 관리와 선별진료소 운영, 민원 대응과 사후관리 대비, 방역소독, 각종 행정 사항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업무는 끊이지 않는다. 유 팀장은 “수개월째 지치고 힘든 일상이지만 고사리손으로 써서 보내준 편지와 이름 모를 주민이 보내준 장어즙 등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보람과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속 거리두기’ 운동에 발벗고 나서는 등 ‘주민 참여형 대응’이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지역전파 예방 일제방역-고창 터미널 방역작업

“코로나19로 애쓰시는 분들 모두 힘내요” 고창군민 코로나19 극복 기부 잇따라



면역력 강화 원기회복 효과 좋은 장어즙, 양파즙, 구운고구마, 땅콩 등 코로나19 애쓰는 재난상황실, 병원에 선물

📍 **장어즙** 고창군 풍천장어 양식장인 ‘대농양만’의 유삼경 대표가 장어즙 200포(4박스)를, 고창영어조합법인(대표 이재정)도 장어즙 50박스를 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전달했다.

📍 **고구마**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서재필 대표도 ‘구운고구마’ 150박스를 비상 근무중인 전북도청 도민안전실과 보건의료과, 고창군 보건소, 고창병원 등에 전달했다.

📍 **양파즙**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욱) 역시 양파즙 500포(10박스)를 전북도청 도민안전실과 보건의료과에 전달했다.

📍 **송편** ‘사임당푸드’도 고창군 자매도시 부산시 동래구를 응원하기 위해 송편 1만개(500만원 상당)를 보냈다.

📍 **땅콩** 고창명품땅콩 62작목반협의회(이경수 대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직접 재배·가공한 케이올땅콩과 가공제품 ‘지킬수’를 대구 수성구청에 전달했다.

📍 **유기농우유** 고창청정유기농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오금열)이 직접 생산한 유기농우유 500상자(1000만원 상당)를 방역 종사자와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 **고구마말랭이** 황금터영농조합법인(대

표 김정식)에서도 고구마말랭이 2000봉지(360만원 상당)를 고창군청과 전북도청에 각각 1000봉지씩 전달했다.

📍 **블루베리농축액·유정란** 해리면새마을부녀회(회장 김윤희)에서 블루베리농축액 10상자(100만원상당), 무장면 산들농장(대표 박현숙)에서 유정란 150판을 군산의료원에 전달했다.

📍 **돼지고기** (사)대한한돈협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동완)가 한돈(돼지고기) 1.5톤(10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 **영양제** 풋살동호회 TOP F-S(단장 장진삼)가 비타민제(220만원 상당), 모양축구회(회장 김두환)와 모양동우회(회장 이현철)가 비타민제(160만원 상당), 선운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회장 정혜숙)에서도 1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기부했다.

📍 **마스크 기부** 농업법인 고창청농원(대표 배태후)에서 방역마스크 400장, 고창읍 김동수씨가 일회용마스크 50장,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와 고창군여성회관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수제 면마스크 600장을 기탁했다. 고창 마음꽃복지센터(센터장 서경범)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면마스크 1000장(1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 기탁자분들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지면의 부족으로 모두 실어드리지 못해 양해를 구합니다.



모든 고창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립니다.

고창군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창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드립니다.

특히 고창군은 '부모님 섬기는 효자군정', '자식농사 잘짓는 고창'을 위해 부모봉양세대, 다자녀 가구 우대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 ✓ **지원대상** 전 군민
- ✓ **지원기준** 2020년 3월 29일 기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 ✓ **지원금액** 1인 10만원, **다자녀가구 세대 20만원**, **부모부양 세대 20만원**
자식농사 군정
효자군정
- ✓ **세대주가 신청할 때** 신분증 지참
- ✓ **세대원 및 대리인(이장 등)이 신청할 때**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 **제출서류**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 ✓ **지급종류** 고창사랑상품권(지류)

※ 6월15일부터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배부해 드립니다.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수령이 어려운 경우
고창콜센터(063-560-8890~8892)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도는 선순환 경제” 높을고창카드 지역상경경제 활성화 톡톡



유기상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고창사랑상품권'이 올해 들어 편의성을 한층 높인 '높을고창 카드'를 출시하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높을고창 카드'는 우체국을 제외한 고창군 관내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 카드발급 이후 휴대전화에서 '고창사랑페이' 어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바로 충전과 사용내역 조회, 잔액관리, 소득공제, 보유한도 증액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고창군 상가·업소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가맹점 등록과 환전이 필요 없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창군은 카드구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이장단과 부녀회를 통한 맞춤 교육을 진행하고, 홍보동영상을 만들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구매 한도를 월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100억원 규모로 예산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트로트계의 BTS’ 가수 진성

“고창에서의 유년시절 그리움이 한(恨)이 서린 트로트의 원천 됐죠”



어릴적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고창은 참 푸근하고,
정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보릿고개’ 노래도 고창이 배경



대한민국에서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다. 중장년층은 물론 1020 세대들도 트로트를 ‘보며’ 즐긴다. 그 트로트 태풍의 중심에 고

창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가수 진성(60·본명 진성철)이 있다.

진성씨는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갈 곳이 없어서 전전하다 할머니와 함께 고창 고수면 은사리에서 살게 됐다. 지금의 중후한 매력과 진한 감정의 목소리는 배고픔을 떨쳐 내기 위해 들로 산으로 다니며 부른 노래 탓이 크다.

“매일 칩뿌리를 캐고 나락 이삭을 줍고 소나무 송진을 잘라 먹으며 자랐어요. 배가 고플 때면 무명 훔바지 입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며’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밭에서 일하던 아줌마들이 ‘잘한다’ 하면서 불러 먹을 것도 챙겨주곤 했어요”

진성은 유년 시절의 기억을 살려 직접 ‘보릿고개’ 노래말을 썼다. 애절한 노랫말에 가슴이 시리고, 어머님의 한숨과 통곡이 가슴에 와 닿으면서 50~60대의 심금을 울렸다. 최근에는 한 경연 프로그램에 14살 소년 정동원이 ‘보릿고개’를 불렀고, 이를 바라보고 있던 그는 눈물을 흘렸다.

“딱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지금도 고창이 보리로 유명한 데 정말 저 어렸을 때 고창의 기억은 온통 보리뿐이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보리이삭을 구워 먹기도 했고, 어른들이 보리베기 할 땐 물심부름도 정말 많이 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 까맣게 익어간 오디를 따 먹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러다 손과 입 언저리는 물론 턱 아래 옷깃마저 까맣게 물들이기도 했죠”

고창에서의 유년시절 사연이 알려진 뒤, 지난해 고창에서 열린 전라예술제에 초대되는 등 각종 지역 행사는 물론 찾는 곳이 더 많아졌다.

“어릴적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고창은 참 푸근하고, 정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앞으로도 고창군민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노래를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풍진(風塵) 세상을 버텨내는 우리에게 트로트는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됩니다. 일상에 치진 우리 어깨를 다독여준 정서적 동반자, 친구인 트로트와 가수 진성 많이 사랑해주세요♥”

1997년 ‘님의 등불’로 데뷔한 가수 진성은 ‘내가 바보야’ ‘태극을 걸지마’ 등 다양한 곡을 발표했지만 오랜 무명 시간을 겪었다. 이후 2008년 ‘안동역에서’와 ‘보릿고개’로 연달아 히트하며 현재는 트로트메들리 4대 천황으로 불리고 있다.



주)하이트진로음료 조운호 대표

“고창의 드넓은 보리밭을 보고 바로 떠올랐죠, 아! 이제 보리가 한류가 되겠구나!”

고창에서 재배된 검정보리로 만든 하이트진로음료의 ‘블랙보리’가 2017년 12월 출시이후 지난 4월 누적 판매량 1억병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블랙보리를 최소 2병씩 마신 셈이다. 카페인과 설탕에 대한 반감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갖는 소비자가 늘면서 물보다 맛있게 마시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블랙보리가 각광을 받았다.

‘블랙보리’의 인기는 고창군 보리재배 농가의 소득 증

대는 물론, 친환경 청정 농업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동력이 되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 조운호 대표를 만나 블랙보리 개발과정과 고창 사랑 이야기를 들어봤다.

주)하이트진로음료 조운호 대표는 과거 한 음료회사에서 하늘보리, 아침햇살 등 곡물차 시장을 개척했다. 특히 2017년 초 하이트진로음료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는 선조들이 즐겨 마시던 보리송능에 주목하고 이

“청정한 자연환경, 지역
농업인들의 열정과 재배 노하우,
행정기관의 소통 노력들을
보면서 감동했고, 앞으로도
고창군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펼쳐 가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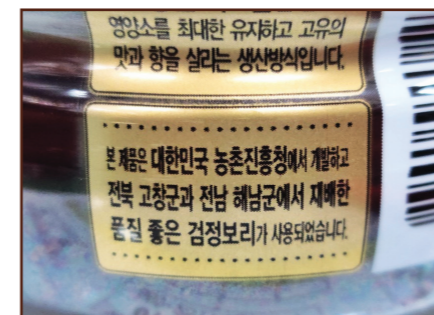
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곡물 차음료 개발을 진두지휘했다.

“미국에서는 햄버거와 콜라를, 일본에서는 회와 튀김에 어울리는 녹차, 우리나라에서는 맵고 짠 식사 뒤 송능을 찾는 문화가 있어요. 보리차는 송능의 뿌리인 곡차의 일종으로 우리 전통 음식문화와 조화를 이뤄 시장성이 클 것으로 봤죠.”

제품 차별화를 위해 선택했던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보리의 고장’ 고창군에서 재배되고 있던 검정보리였다. 검정보리는 일반 보리보다 향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함량이 4배 높고 식이섬유도 1.5배 많아 건강에 좋은 블랙푸드다. 현재 하이트진로음료는 고창과 해남에서 검정보리 150톤을 시작으로 지난해 400톤을 수매하면서 재배 농가에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블랙보리는 제품 겉면에 ‘고창에서 재배된 보리로 만든다’고 쓰여 있어요. 고창의 청정한 이미지는 물론, 지역경제와 농가를 살린다는 상생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음료가 된 것 같아요 ^-^”

‘하이트진로음료’는 이 같은 성과로 ‘2019년 소비자가 선정한 농업·기업간 농식품상생협력 우수기업’, ‘2019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최우수상)’ 등에서 선정됐다.



농업과 기업, 기관과의 상생협력 감사패전달

“고창의 대자연 품은 발효식초, 만병통치약 따로 없어”

안문규 식초명인, 복분자 재배 중 식초의 시장성 주목해 대한민국 최초 ‘복분자식초’ 특허출원
“세계적인 식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식초장점, 발효 노하우 전수에 최선을 다할 것”

복분자 식초 안문규 명인



새콤달콤하다. 뒷맛은 깔끔하다. 고창상회복분자에서 만들어진 ‘고창복분자식초’를 물에 희석해 먹는 느낌은 상쾌했다. 운동이나 등산을 하면서 생긴 갈증을 해소하기엔 제격이란 생각이 들었다. 평소알던 시큼털털한 식초와는 차원이 달랐다.

청정 고창에서 재배된 고품질의 복분자를 활용해 천연발효식초를 만드는 안문규 명인(63). 안 명인은 지난해 고창군 초대 농식품명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안 명인은 26살에 귀촌해 포도와 복분자를 재배하다가 우연히 식초의 시장성에 주목했다.

안 명인은 “생과는 작황에 따른 가격변동이 너무 심해 안정적인 수익창출 방안을 고민하던 중 웰빙열풍을 타고 급부상하던 식초에 관심이 갔다”며 “흑초로 유명한 가고시마를 여러 차례 찾아 발효 최적온도부터 식초가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섭렵했다”고 밝혔다.

마침내 안 명인은 2007년 고창군과 공동으로 복분자 식초를 특허냈고, 이후 복분자 웰빙식초 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식초 산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복분자식초는 싱가포르 20만불 수출에 성공했고, HACCP 인증, 60평형 전통



발효식품 복분자식초 체험장을 통해 건강과 나눔의 재능기부에 나서고 있다.

천연발효식초는 25도 이상의 온도와 신선한 공기, 적당한 습기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천연발효식초를 만드는데 짧게는 100일에서 길게는 1년이란 기다림도 필요하다.

안 명인은 “발효할 때 게르마늄 함량이 높은 고창황토로 만든 용기를 쓴다. 고창옹기처럼 숨을 잘 쉬는 항아리에 발효식초를 오래 저장하면 수분이 점차 사라져 고급 식초가 된다”고 말했다.

안 명인은 “야식으로 라면이나 치킨을 먹고 천연발효식초를 한 잔 마시면 다음날 붓기가 사라진다”며 “당뇨를 예방하고, 혈압을 낮춘다. 운동으로 생긴 피로물

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데 최고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자랑했다.

안 명인은 고창이 대한민국 식초문화를 선도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봤다. 전통발효식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재료와 물, 기온이다.

안 명인은 “고창은 복분자를 비롯해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원재료가 풍부하고, 게르마늄 온천수로 대표되는 건강한 물, 여기에 발효되기에 딱 좋은 연중 온화한 기온까지 명품식초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고창이 일본 가고시마의 흑초마을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식초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식초의 장점을 알리고, 발효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교육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군 최초 결혼이주여성 공무원 1호 유연씨

“고창에서 행복한 꿈을 이뤘어요”



**전북 고창군 최초로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정)
공무원이 탄생했다.
중국 하북성 탁주시 출신의
유연(33)씨가 그 주인공이다.**

고창군은 늘어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노동자들의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창군 최초로 지난 1월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인 유연씨를 사회복지과 다문화가족 전담 행정 요원(2년 임기제)으로 정식 채용했다.

고창군이 임명한 최초의 ‘결혼이주여성 1호 공무원’이다.

중국 한족 출신인 유씨는 중국 대학에서 한중무역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한국으로 건너와 경기도 이천에서 전동모터를 수출입하는 무역회사에 다녔다. 그러던 중 2012년 거래 회사의 직원으로 알게 된 고창 출신의 남편 정재우씨와 결혼, 회사생활을 접고 남편을 따라 고창으로 이주했다.

남편은 귀농해 농사를 지으며 전 직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현재 고창에서 드론학원 운영과 드론방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고창에서 결혼생활과 함께 유씨는 대학교 전공을 살려 2016년부터 2년간 고인돌박물관에서 중국어 통역·안내원 지원업무를 맡아 볼 정도로 한국어와 고창군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유씨는 틈틈이 고창 글마루 작은도서관에서 재능기부를 통해 중국어 강사로 활동하며 한국과 중국의 민간대사 역할도 맡아왔다.

현재 호남대 대학원 국제중국어교육학 석사과정 중에 있으며 한국과 고창을 알리려는 열정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그런 연유로 유씨는 고창군에서 공모한 ‘결혼이주여성 공무원’에 지원해 높은 점수를 받으며 당당히 합격했다.

유씨는 “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자녀교육 문제, 취업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등 많은 어려움과 고충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결혼이주 여성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이 고창군민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정부초 초청행사, 국제 통화료 지원 사업 등의 다문화가족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싶다”며 구체적인 업무 계획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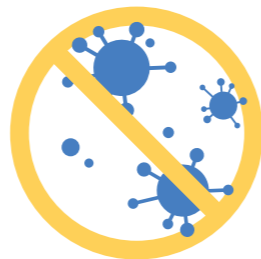
“고창은 참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역사와 문화가 깊은 고창. 공기도, 물도, 환경도 모두 좋아 군민들이 행복해 보여요”라며 고창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보였다. 올해로 고창에서 생활한지 8년째. 이곳 생활에 시나브로 적응하고 있는 유씨에게 올해는 공무원 생활 첫해로서 더욱 뜻깊은 해다.

“공무원으로서 아직 부족함이 많겠지만 큰 오빠 같은 임채남 과장님과 언니 같은 김애숙 팀장님을 비롯해 좋은 동료 직원들이 곁에 가까이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유씨는 “남편과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 ‘고창군민’이라는 자부심으로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느끼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함께 더불어 살고 싶다”며 행복한 마음을 거듭 전했다.



의장 인사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창군의회의가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창군의회 의장 조규철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범한 제8대 전반기 고창군의회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해 왔듯이 우리의 하나 된 힘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 신장에 노력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출향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반기 동안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시면서 지역 주민들과 현장 행정 실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지만 한편, 아쉽고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하나하나 채워 나가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는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라는 의정구호 아래 제8대 의회 전반기 동안 조례안 143건, 예산안 18건, 승인안 2건, 동의안 47건, 결의안 10건, 행정사무감사 2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4회를 비롯한 많은 성과와 크고 작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각양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농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창군 농번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을 비롯하여 16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하여 시행한 것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후반기 의회에서도 새로 선출된 의장단을 중심으로 더욱 성숙하게 노력하여 오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고창군 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고창군의회 의장 조규철

의정 포커스

제271회 임시회

의원발의 6건 등 36건 심의·의결, 결의안 2건 채택,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고창군의회는 5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6건, 결의문 2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고창군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결의안 채택

의료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고창군민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이봉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과 세계자연유산 갯벌 등재에 추진 중인 심원면 갯벌 주변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어가의 소득의 터전을



의회(고창문화관광재단 현장방문)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보호하기 위하여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심원면 염전 어가의 생존권 사수와 갯벌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결의안' 이 채택 되었다.

임시회 기간 중 5월 8일부터 14일까지 '고창 푸른숲 자연장' 등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6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각 과·관·소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개선 및 요구사항이 도출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발송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다.

상임위원회별 주요안건처리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경신)에서는 김영호의원 발의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호의원 발의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차남준의원 발의 「고창군의 회 포상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봉희)에서는 조민규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현행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 중학교 으뜸인재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등 1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호)에서는 이경신의원 발의 「고창군 재난기 본소득 지원 조례안」, 최인규의원 발의 「고창군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창군 농림축수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남표)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코로나19 대응 예산 등을 포함해 당초 본 예산 6,302억원에서 600억이 증액된 6,902억원을 확정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20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내 고장 문화유산 지킴이' 환경정화 활동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활동 및 마스크 기부



제270회 임시회 과·관·소별 주요업무 보고



제271회 임시회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



제271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자랑스런 고창인의 필수품,

돈도 벌고
고창경제도 살리는
높을  고창카드
생활기



높을고창 카드
홍보영상



이길은 (30대·워킹맘)

일하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는 저에게 최고의 단짝 친구는 '높을고창' 카드인 것 같아요. 손 가볍게 외출해도 카드 한 장이면 고창 어느 곳에서도 먹고 사고 할 수 있어 바쁜 워킹맘에게는 최고!최!최고!!
슈퍼에서 간단히 아이 간식 살 때도 카드는 수수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생각이 들어 살까 말까 고민되지만 휴대전화에 항상 꽂혀있는 높을고창 카드 한 장이면 이런 마음에 부담은 없죠!!
상인들도 한 달 결제로 수수료 없이 통장으로 입금되니 좋고 이런 것이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하는 거겠죠?^^
거기에 요즘 어느 은행이 10% 이자를 주나요? 고창카드를 충전할 때 10% 할인 혜택이 있다는 사실! 7월 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내가 생활비로 쓸 만큼 적립하면 10% 더해 충전되니 엄청 신나요. ^^



“하얀색
이쁜 카드 꺼내는데
부듯해요”



정소희 (3명의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

고창사랑상품권도 엄청 좋았거든요.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높을고창 카드 발행 소식을 알고 있었고 카드 발행을 누구보다 기대했어요.
올해는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계속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보니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높을고창카드의 대부분을 마트나 식당, 배달음식 등 먹거리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집에만 있기 답답한 아이들과 함께 농장에 가서 텃밭을 조금 가꾸고 있어요. 세 아이에게 농장에서 신을 예쁜 장화를 선물하고 싶어 고창 전통시장에 있는 신발 가게에 다녀왔어요. 텃밭에 갈 때 필수품인 장화 역시 높을고창카드로 결제했답니다. 각자 마음에 드는 장화를 고른 후 아이들은 정말 행복해 했어요. 장화 한 켤레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마냥 신기했어요.



정의수 (20대 취업준비생)

스마트폰 앱으로 1초만에 충전하고 사용내역·인센티브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이 편리했어요. 사용할 때 10%추가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어서 엄청 좋아요. 괜히 같은 양 사고도 더 싸게 산 것 같아 합리적인 소비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 있죠.
고창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 입장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보니 매출도 많이 늘 것 같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마을 어르신들 보면 장날에 광주나 정읍쪽 안 가시고 읍내로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이 고창에서 자영업하고 계셔서 이런 제도가 더 와닿았어요. 고창경제를 살리고 있단 자부심을 갖고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
도와주는
착한카드”



고향 인재 키우기에 기부한 할머니의 감동 이야기

김복순 할머니, 고창군장학재단에 1억원 쾌척



“이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고창의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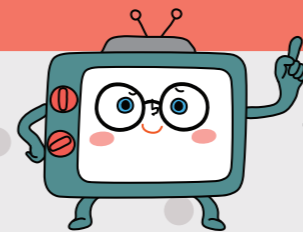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는 할머니가 지역인재 키우기 장학금으로 1억 원을 쾌척해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고창읍에 사는 김복순(70세) 할머니가 6월1일 고창군장학재단을 찾아 유기상 이사장에게 훌륭한 학생을 키우는 데 써달라며 1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김복순 할머니는 1951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17세 되던 무렵 가족과 함께 고창군으로 이사와 생활했다. 이후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직장을 따라 서울로 갔

다가 10여년 전 퇴직 후 고향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고창으로 내려왔다. 김복순 할머니는 “고창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웃과 나누고 베풀고 싶은 마음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며 “유기상 군수님의 고창사람 키우기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어 “내 생애 마지막 숙제가 고향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그

한을 풀게 됐다”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귀하게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학금기탁식 김복순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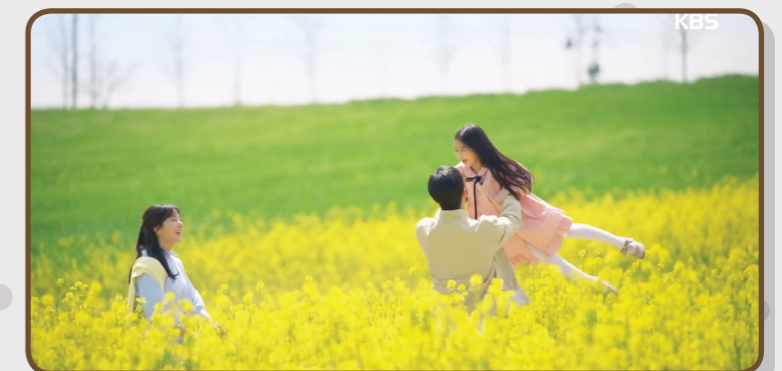
텔레비전에 나온 고창



6시 내고향



꽃길만 걸어요



하국원의 밥상



“군민이 군수인 높을 고창시대”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한 곳에서 해결하는 쉽고 편한 고창 생활



책 읽고, 강연듣고, 문화체험 한 곳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중앙도서관+생활문화센터) 선정
국비 등 128억원 확보



아이 맡기고, 민원서류 발급 한 곳에서!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가족센터+고창읍사무소) 선정
국비 등 187억원 확보



신개념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선정 국비 등 176억원 확보



고창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어촌의 미래

궁산어촌 종합관광개발사업(국화공동생활홈 등) 선정
국비 등 59억원



호남권 유일 ‘문화향유사업 통합 지원사업’

권역별(고창권, 무장권, 흥덕권) 문화·생태·예술 기반
‘치유 콘텐츠’ 구축(3억원)

2020년 국가예산 확보

141건 1325억원(전년대비 123억원 증가)